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적 동반자...재수 끝 靑 입성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동반자'였던 노무현(오른쪽)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함께 포즈를 취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치 입문에서 당선까지

2012년 4월 19대 총선 출마
'새누리 텃밭' 부산 사상구 승리
2012년 6월 새정치 대선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석패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도선 이후 두 번째 만에 청와대 입성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정치 경력은 비교적 짧지만 그 성과는 매우 컸다.

문 대통령의 본격적인 정치 인생이 시작된 것은 참여정부 이후였다. 이명박 정권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진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끝났다. 장례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보여준 절제력과 자제력은 그를 부각시켰고 이는 결과적으로 그를 정치권으로 이끌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이 언론과 인터넷 팟캐스트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지자들이 급속도로 퍼져갔다.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그는 대선 출마 요구를 수용해 지난 2012년 4월 11일 부산 사상구에서 19대 총선에 출마했다.

사상구민들은 당시 전폭적으로 그를 밀었고, 새누리당의 텃밭인 이곳에서 '박근혜 아바타'로 불리던 손수호 새누리당 후보를 꺾었다.

총선 승리 두 달 만에 그는 '저지'에서 이긴 것에 힘입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 후보로 나섰다. 당시 그는 안철수,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견근일척의 승부를 벌였지만 석패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젊은 층과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보수 대결집을 이끌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당시 그가 얻은 146만2632표(48.07%·박 전 대

통령 51.6%)는 역대 대선 후보 중 두 번째로 많은 표였다.

18대 대선에서 패배한 뒤 "개인적으로 새로운 정치, 시대를 직접 한번 이끌어 보겠다고 생각했던 개인적인 꿈은 이제 끝이 났다"며 대선 불출마를 시사한 듯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선두를 달리며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세론'을 형성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출품 야권의 선두주자로 박근혜 정권 내내 강력한 야권 주자로 자리잡았다. 정권 초기 NLL 포기 논란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는 '유민아빠' 김영오 씨와 함께 동조 단식을 하는 등 사회 참여에도 적극적이었다.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와 호남 구 민주계의 집단 탈당으로 분당 사태를 겪기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를 영입하는 등 문호를 열어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원내 1등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후력은 문 대통령을 또 다시 19대 대선 후보로 불러들였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원칙과 소신을 갖춘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문 대통령이 주목됐다.

참여정부 정무수석 시절 문 대통령은 비리 문제나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노 전 대통령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직언을 주저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비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청렴하고 강도 높은 검증을 한 민정수석"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결국 문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야권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대세론을 유지하며 제1당인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됐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에게 '시대정신'을 가장 잘 실천할 지도자라고 각인돼 결국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종행기자 golee@

걸어온 길

원칙·소신...꽃길 대신 가시밭길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범치 않았다.

그는 편한 길을 두고도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이 같은 그의 원칙과 소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선장으로 주목하지 않았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얘기다.

그는 1953년 1월 24일 경상남도 거제군 명진리 태생이다.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1972년 경희대학교 법학과 4년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한 이후 문 대통령은 1974년 유신시대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구류 처분을 받고 풀려난다.

이듬해 1975년 4월,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이 사형을 당한 다음날, 그는 사법 살인에 항의하는 대규모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된다. 1975년 석방되자마자 집집 신체검사와 입영통지서를 받고 강제징집 당한다. 창원 39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문 대통령은 특전사부부제 1공수 특전여단에 배치된다.

군인 문재인은 폭파과정 최우수, 화생방 최우수 표창을 받았고, 공중낙하, 수중침투, 전리행군, 고급 인명구조 훈련 등을 거뜬히 치러낸 특A급 사병이었다. 상병 때는 북한이 일으킨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한 대응작전에 투입되기도 했다.

만기 제대 후 아버지의 서거는 문 대통령을 사법시험의 길로 이끌었다. 장남으로 집안을 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뒤늦게나마 아버지께 한번이라도 잘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결심 때문이었다.

1980년 5·17 확대 계엄 조치가 발동되면서 경희대 운동권 핵심이었던 그는 구속됐는데 이 때 경찰서 유치장에서 2차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는다. 판사를 지망했지만 시위전력으로 임용에서 탈락한 후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부산으로 돌아온 그는 노무현 변호사와 운명적으로 만난다. 깨끗한 변호사가 되기로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선우배로 또는 친구처럼 함께 일하며 신뢰를 쌓아 나갔다. 각종 인권, 시국, 노동 사건을 기꺼이 맡아다니던 두 사람은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제야 운동에도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이 당시 부산·경남 민변을 창립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부산 NCC 인권위원을 맡았다. 1985년에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약칭 부민협)를 창립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현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과 함께 기념촬영.

경희대 법대 전액장학생 입학

인혁당 사건 시위 주도 구속

부친 별세 계기 사법시험 도전

노무현과 인권변호사 동행



특전사 사병으로 복무 시절.

에는 6월 항쟁의 주역이 된 부산민주전법법정 국민운동본부(약칭 부산 국민)를 만들어 상임집행위원을 맡았다.

참여정부가 시작된 이후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2차레와 시민사회 수석을 거쳐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다. 이후 이명박 정권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진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끝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부인 김정숙 여사와 결혼식 모습. 아래는 가족 사진.



부친 문용형씨는 함경남도 흥남의 문씨 집성촌인 술안마을 출신이다. 원래 흥남 시정에서 농업계장, 농업과장으로 근무했으나 한국전쟁 시기 아내 강한옥씨와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로 남해해 문 대통령을 낳았다. 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6·25 피난민 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가계도

문재인 대통령은 피난민의 아들이다. 한국전쟁을 피해 남으로 자유를 찾아온 부모님이 처음 정착한 곳은 거제도, 이후 그의 가족은 북한 출신 피난민이 많이 살던 부산 영도도 삶의 터전을 옮겼다.

부친 문용형씨는 함경남도 흥남의 문씨 집성촌인 술안마을 출신이다. 원래 흥남 시정에서 농업계장, 농업과장으로 근무했으나 한국전쟁 시기 아내 강한옥씨와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로 남해해 문 대통령을 낳았다. 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으로 아버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2남3녀 중 장남이다. 누나 문재열씨와 여동생 문재성씨는 주부이고 남동생 문재익씨는 원양어선 선장이다. 막내 여동생 문재실씨는 모친을 모시고 부산 영도에서 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81년 경희대 2년 후배인 김정숙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문준용) 1녀(문다혜)를 두었다. 자녀교육관으로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들 준용씨는 2011년 광주비엔날레에 '마루쿠루스케 테이블'이라는 작품을 출

품한 미디어아티스트다. 준용씨의 장인은 목사로 일했다. 딸 다혜씨는 회사원이다.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인연은 학생운동에서 시작했다. 시위 도중 문 대통령이 최루가스를 맞고 실신했을 때 대학 2년 후배인 김 여사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준 것이 계기가 됐다.

김여사는 입대할 문 대통령을 처음 면회할 때 일반적인 통달 대신 안개꽃을 한아름 들고 왔다는 일화가 있다. 프로포즈도 김여사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처가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다. 장인과 장모가 서울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한복집을 했으며,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결혼 당시에는 강화도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이종행기자 golee@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 시 : 2017. 5. 9(화) 오후7시
- 장 소 :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앞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 시 : 2017. 5.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 사주 + 풍수 15만원(월)

컨설팅분야

- 가감풍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맥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상가건물 대 370㎡ 건물2,000㎡ 매 32억원
- 금호동 상가건물 대 600㎡ 건물2,100㎡ 매 36억원
- 치명동 5층 상가건물 대 360㎡ 건물 1,150㎡ 매 25억원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 (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상가건물 대 440㎡ 건물 1,500㎡ 매 25억
- 쌍암동 4층 상가건물 대 610㎡ 건물 1,100㎡ 매 29억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기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861㎡ 매 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지

- 용전동 생산복지, 대로점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복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복지 창고용지 도로점 990㎡ 5억원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9100㎡ 매 45억 (물류창고, 아적장 적합)
- 광산구 내산동 일야 36,000㎡ 매 3억
- 남평동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상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용, 남향)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산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태광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기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 주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 / 토지 / 기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억원
3. 신기동 생산복지 답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전3,070㎡ 매6.5억원
6. 산월동 자연복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부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마곡동 상가분양권 1층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문의 010-2572-4663